

과학기술학을 통한 사회학의 확장:

"한의학의 과학화"와 "황빠현상," 두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김종영(과학기술정책연구원)

1. 연구 주제

1-1. 연구 질문과 이론적 배경

이 논문은 황우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화기술지(ethnography)이다. 특히 이 글의 초점은 자신들의 시간, 노력, 금전을 투자해 황우석 지지에 발 벗고 나선 '황빠'¹⁾들이다. 이들 중에는 지난 2년 동안 100여 차례의 집회와 시위에 참가한 이들도 있고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을 써 가며 황우석 지지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다. 한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은 황우석 지지 활동으로 인해 매출이 반으로 줄었다고 한다. 어떤 40대 주부는 황우석 지지 활동으로 인해 가족간의 불화를 겪어야 했다. 어떤 회사원은 퇴근 이후 여의도 MBC방송국 정문에서 릴레이 촛불 시위를 벌이고, 어떤 아주

* 현장 연구를 도와주시고 면접에 응해 주신 황우석 지지자 분들께 감사한다. 비록 나의 황우석 사태에 대한 견해가 그분들과 다를지라도 그분들의 친절과 인내가 없었다면 이 연구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황우석 사태의 이해를 위해 면접에 응해 주신 한학수, 강양구, 김병수, 한재각, 황우석 지탄 국민연대 M에게도 감사 드린다. 면접주선과 자료의 수집과 해석 등에 많은 도움을 준 김병수씨와 황우석 사태 이후 최초로 면접에 응해 주신 제보자 K와 B에게 각별한 감사를 드린다. 이 연구는 2007년 한국문화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와 2006년 한국과학기술학회 후기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논평을 해 주신 이수자 선생님과 김동광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날카로운 비판과 지적을 해 주신 익명의 논평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논문의 주장은 필자의 소속 단체나 연구 지원 단체와는 상관없는 개인적인 것임을 밝혀 둔다. 이 논문은 2006년도 과학문화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 이 논문은 "'황빠' 현상 이해하기 : 음모의 문화, 책임전가의 정치" 라는 제목으로 『한국사회학』에 게재될 예정이다. 인용은 학술지에 게재된 이후에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이 논문에서 '황빠'는 희화화나 조롱을 함축한 것이 아니라 열성 황우석 지지자를 가리키는 준말로 사용된다. 일상생활에서 거리낌 없이 지지자 스스로가 자신을 '황빠'라고 한다. 이 글에서는 종종 열성 지지자, 황우석 지지자 등과 같이 맥락에 따라 바꾸어서 쓰인다. '황빠'에 반대되는 의미로, 열성 황우석 비판자를 '황까'라고 한다.

머니들은 KBS 앞에서 여러 달 동안 상주하면서 시위를 한다. 전 세계를 상대로 논문 조작 파문을 일으킨 한 과학자를 열렬히 지지하는 이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개인적으로 얻는 실제 이익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난 2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황우석 지지 운동에 바친 이유는 무엇인가? '사기꾼'으로 몰리고 있는 과학자를 구명하기 위한 이들 사회운동의 특징은 무엇인가? '황빠'들의 조직은 어떠한가? 어떤 문화를 가지는가? 이들이 주장하는 '음모론'은 어떤 사회적 함의를 지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 논문은 두 가지의 이론적 목적을 가진다. 첫째, 기존의 황빠 이론에 대한 한계를 지적한다. 기존의 이론은 황빠를 심리주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주류인데 이런 심리주의적 설명은 황우석 사태를 단순화시키고 황우석 지지자들을 비정상적인 사람들로 분류한다. '스톡홀름 증후군', '인지 부조화 이론', '믿고 싶은 정보 이론'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의 주요 문제점은 황우석 사태와 황빠 현상을 구체적인 사회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지 않고 옳고/그름의 이분법적 잣대로 미리 재단하는 것에 있다. 과학기술사회학은 과학지식사회학에서부터 행위자-연결망 이론에 이르기까지, 대립되는 두 과학 지식 또는 두 세력 간의 '대칭성'을 강조한다. 이것은 참/거짓의 이분법을 폐기하고 문제가 되는 행위자 또는 대상을 같은 지위에 올려놓는 것을 의미한다(Bloor, 1991; Latour, 2005). 오랜 기간 동안 참여 관찰과 심층 면접을 통해 얻은 필자의 결론은, 황빠들의 주장에 논리적인 허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적어도 심각한 심리적·정신적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급조된 심리학(instant psychology)이나 급조된 사회학(instant sociology)은 깊이 있는 경험적 연구 없이 언론에 의해서 재생산되어 분석 대상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 제2장에서 기존의 황빠 이론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하는데 이것은 황빠들에 대한 기존의 편견을 바로잡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 해석들에 대한 대안으로 필자는 황빠현상을 한국사회의 복잡한 사회기술적 관계 속에 파악하며 황빠현상과 연관된 다양한 문화적·정치적·도덕적·감성적 요소들을 고려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즉 황빠현상은, (1) 민족주의적 열망과 미래주의적 비전에 기반한 황빠들의 집단적 감성 (2) 한국 사회 체제에 대한 불신의 문화 (3) 황우석 사태의 복잡함과 이해하기 어려움 (4) 황빠들의 통찰 없는 박식함과 사회과학적 환원주의 (5) 언론의 애국주의, 경제주의, 미래주의 담론의 유포 (6) 정부의 줄기세포 연구 거버넌스의 실패, 이 여섯 가지 요소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다고 이 글은 주장한다.

둘째, 이 논문은 황빠 현상을 통해 공중의 과학 이해(PUS :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이하 PUS라고 칭한다) 연구에 새로운 시사점을 던지려는 데 그 이론적 목

적이 있다. 기존의 PUS는 크게 계량적 PUS와 구성주의 PUS로 나뉜다(박희제, 2003; 김동광, 2003). 인식론적으로 계량적 PUS는 과학 지식과 공중 사이의 간극을 전제하고 공중의 과학 지식 결핍을 국가나 언론이 치유해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구성주의 PUS의 관점은 이런 입장을 '결핍 모델(deficit model)'이라고 부른다(Wynne, 1995; Gregory and Miller, 1998). 이 접근은 우선 공중의 과학적 소양(scientific literacy)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이것이 많을수록 과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다고 가정한다. 반면 구성주의 PUS는 사례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일반 시민을 과학 기술자와 대등한 위치에 놓고 그들이 과학 지식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구성해 나가는지에 초점을 맞춘다(Irwin, 1995; Michael, 1992, 2002; Yearley, 2000). 구성주의 PUS는 일반 시민을 능동적 참여자로 해석하고 또한 그들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과학민주화의 논리를 암묵적으로 지지한다. 계량적 PUS가 과학과 공중의 위계를 정함으로써 공중을 수동적 수용자로 취급하는 반면, 구성주의 PUS는 공중을 낭만화 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황빠 현상은 PUS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필자는 구성주의 PUS의 장점을 취하는 동시에 계량적 PUS와 구성주의 PUS 둘 다 황빠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계량적 PUS의 한계부터 지적해 보면 첫째 계량적 PUS는 과학적 소양의 전달체로서 국가와 언론을 상정한다. 하지만 황우석 사태에서 보여주었던 정부의 홍보와 언론의 보도는 지식의 전달자라기보다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이미지, 욕망, 감성의 생산자였다. 황빠 현상의 발생 원인은 지식의 부족이라기보다는 감성의 과잉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계량적 PUS가 공중에 대해 '수동적으로 지식을 전달 받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것과 달리 황빠 현상에서의 공중은 과학 현상과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셋째, 과학자 공동체와 일반 시민들이 가지는 규범가치가 서로 다름을 계량주의 PUS는 간과한다. 예를 들어 과학자 사회가 논문 조작을 황우석 사태의 핵심으로 보는 반면 황빠는 줄기세포 연구의 경제적 가치, 황우석 처벌의 부당함, 책임져야 할 당사자들의 책임 회피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계량적 PUS는 황빠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구성주의 PUS는 공중의 과학 이해에 담겨있는 다차원적이고 세밀한 부분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구성주의 PUS에 의하면 황빠 현상은 인지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도덕적·정치적 맥락을 염두에 두고 다차원성과 상호연관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²⁾ 여기서 일반 시민과 과학을 연계해

2) 특히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정치적·도덕적·경제적 측면에 대한 논란은 세계 각국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Best and Kellner, 2002; Gottweis, 2002; Prainsack, 2006).

주는 언론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구성주의 PUS가 지적하듯이 이들은 '신뢰'의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다(Dierkes and von Grote, 2001; Neidhardt, 1993; Wynne, 1996). 황빠들의 언론, 정부, 과학자 집단에 대한 신뢰의 결여는 한편으로 그들이 도덕적·정치적 투쟁을 전개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 언론, 과학자 집단의 황우석 사태에 대한 설명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황빠 집단 자체가 황우석 사태의 원인을 찾아내려고 노력한다. 황빠들은 정치적·도덕적 투쟁의 과정에서 '책임전가의 정치'를, 황우석 사태의 원인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음모론'을 고안한다. 따라서 구성주의 PUS는 황빠 현상을 이해하는 데 일면 도움을 준다.

하지만 구성주의 PUS는 황빠 현상을 이해하는 데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구성주의 PUS는 지역적 지식을 가진 일반인(laymen)과 보편적 지식을 가진 과학자들 사이의 충돌을 주요 사례로 다루며 전자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부각시킨다. 따라서 구성주의 PUS는 공증을 낭만화 시키는 경향이 있다. 황빠현상을 구성주의 PUS로 이해할 수 없는 한계가 여기에 있는데 황빠의 모순-음모론과 사회과학적 환원론이라는 논리적 모순과 책임전가의 정치는 윤리적 모순-을 필자는 구성주의 PUS라는 입장으로 두둔할 수 없다.

구성주의 PUS의 두 번째 한계는, 구성주의가 공증들의 정체성이 역동적이며 이질적임을 잘 보여주었으나, 공증들의 집단적 감성과 욕망이 생명공학과 같은 특정한 기술체제와 연결된 미래주의적 담론 속에서 어떻게 생산되고 변화하는지를 보질 못했다. 구성주의 PUS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서구 사례를 중심으로 두었는데 구성주의 PUS는 위험, 환경, 식품 안전과 같은 영역에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다루었다. 반면 황빠 현상의 중심에는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민족주의적 열망과 미래주의적 비전³⁾이 있으며 이것은 시민들의 구체적인 일상보다 집단적인 비전, 욕망의 형성과 연관이 있다. 황빠들의 민족주의는 전형화되고 형식적인 '위로부

3) 여기서 미래주의적 비전은 줄기세포 연구에 의해 실현될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과 강하게 연결된다. 황빠들은 크게 3가지-미래에 실현될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대, 난치병 치료에 대한 희망, 한국이 줄기세포 연구의 세계적 중심이 될 것이라는 기대-의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 거의 모든 중요한 과학기술은 미래주의적 비전을 가지고 있으나 줄기세포 연구를 둘러싼 미래주의적 비전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줄기세포는 '세포 중의 세포'이며 줄기세포 연구는 생명의 근원에 대한 탐구이다. 만능분화능력을 가진 줄기세포 연구는 미래에 인간이 자신의 생명과정의 단계를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거대한 기대와 희망을 불러 일으킨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줄기세포 연구는 곧 미래 생명공학, 더 나아가 과학의 중심임을 의미한다. 황빠들의 이러한 미래주의적 비전은 민족주의적 열망과 함께 현재 그들이 황우석 사태와 한국줄기세포 연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해하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

터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황빠들의 민족주의는 미래주의와 결합하여 '현재'의 실재를 속이는 기능보다는 '미래'에 실현될 국가적 번영과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고 '희망'하는 새로운 감성을 형성한다. 과학기술, 특히 생명공학, 과 연관된 집단적 감성의 형성은 언론, 정부, 과학자집단, 공중, 생명공학관련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담론과 상(imaginary)에 영향을 받는다(Rajan, 2006; Rose, 2007; Franklin, 1997). 즉 황빠들의 감성은 황우석, 언론, 정부, 과학자들, 바이오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비전, 희망, 하이프(hype)와 공동생산(co-production)되어진다. 하지만 황빠의 민족주의적 욕망과 미래주의적 비전에 기반한 집단적 행동은 반황우석 담론과 반줄기세포 담론에 의해 도전을 받는데, 이에 대해 한편으로 황빠들은 황우석의 잘못을 인정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그들의 집단적 행동을 민주적인 방식과 절차에 맞추려고 한다. 동시에 그들은 황우석은 잘못에 비해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으며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황빠들은 민주적 가치를 부분적으로 인정하여 황우석의 잘못을 인정하는 동시에 민족주의적 열망과 미래주의적 비전에서 황우석을 지지하는 모순된 상황을 연출한다. 이처럼 이 글은 황빠들이 겪는 민족주의적 열망, 미래주의적 비전, 민주주의적 가치 사이의 모순과 충돌을 보여준다.

1-2 연구 방법론

문화기술지(ethnography)는 연구 대상자의 문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연구 방법이다 (Fetterman, 1998; Hammersley and Atkinson, 1995; Wolcott, 1999). 언론에 비추어진 단편적이고 편향적인 '황빠'의 모습은 현장 조사 연구에서는 보다 다차원적이고 복잡하게 나타난다. 그들을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인 세력으로 결론 내리기 전에 먼저 그들은 이해되어야 한다. 현장 조사 연구는 통상 참여 관찰, 심층 면접, 자료 수집으로 이루어진다. 필자는 2005년 11월 말부터 2007년 5월까지 황빠들의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했고, 이 중 18명을 심층 면접하였다.⁴⁾ 황우석 지지 운동이 황우석 사태⁵⁾의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이 사태와

4) 2006년 8월 이전에는 온라인 참여 관찰이 주를 이루었고 2006년 8월부터는 오프라인 참여 관찰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2006년 8월 이전에도 황빠들의 시위나 행사 때 몇 차례의 오프라인 참여 관찰을 하였다.

5) 황우석 사태의 원인, 분석,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김근배(2007), 김병수(2006), 김종영(2006), 김환석(2006), 서이종(2006), 이영희(2006), 홍성욱(2006) 등이, 국외에서는 Cynthia Fox (2007), Eve Herold (2006) 등이 자세하게 다루었다. 황우석 사태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세 권의 책은 일차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강양구·김병수·한재각, 2006; 이형

직접 연관된 인물들도 면접하였다. 한학수 <PD수첩> PD, 제보자 K와 B, 강양구 <프레시안> 기자, 김병수 시민과학센터 전 간사, 한재각 민주노동당 정책위원, 황우석 지탄 국민연대의 대표 M씨가 그들이다. 이렇듯 이 연구를 위해 총 25인을 심층 면접하였다.⁶⁾

황우석 지지자들은 황우석 사태 초기에 '아이러브황우석'(지지자들은 '알럽황'이라고 부른다) 다음(Daum)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을 하다가 지지 운동의 방향성을 둘러싸고 분열하였다. 황우석을 지지하는 네티즌 연대(황지연), 어게인 황우석, 황우석 광장, 어머니 애국단, 남부군, 민중의 회초리(민초리), 점프리맨, 황우석 지킴이 불자 모임(황지불), 황우석♥난자 기증 모임(난기모) 등 현재 40개가 넘는 단체로 분화되었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각종 집회와 모임의 조직, 열성 지지자들의 동정과 활동 공유, 반황우석 세력 성토, 음모론, 즐기세포 연구와 관련된 정보 교환, 서로에 대한 비방·욕설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친황우석 언론은 대부분 인터넷 언론들인데 이들은 황우석 박사의 동향과 황빠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의 소리, 정치웹진 판, 플러스 코리아, e 조은뉴스, 서프라이즈 등이 친황우석 언론에 속한다. 오프라인 활동은 황우석 사태와 관련된 다양한 집회와 홍보 활동이 주를 이룬다. 황우석 공판에의 참여, 지지자들의 결속을 위한 운동회, 지지 활동의 전략과 방향을 위한 대표자 회의 등도 중요한 활동들이다. 집회장소는 여의도 KBS, 여의도 MBC, 광화문 일대, 청와대 등이다. 초기의 집회는 수천 명에 달하는 규모(2006년 3월 1일 최대 규모였음)였으며 이후로는 대개 수백 명이 모이는 집회가 이루어졌다.

오프라인 참여 관찰은 2006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는데 8월 5일 열성 지지자 모임(약 150여 명 모인 것으로 추산. 서울교총회관)에서 처음 정식으로 필자를 소개하였다. 당시 필자는 모 기관 연구원이며 황우석 박사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고 중립적 입장에서 황우석 지지 운동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거의 모든 열성 지지자들이 필자를 반겨 주었다. 열성 지지자들은 앞으로 논문을 잘 써 달라든지 말하거나 황우석 지지 쪽으로 필자를 끌어들이려 하였다. 그럴 때마다 필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에서 황우석 박사와 열성 지지자들을 비판할 수도 있다는 말도 하였다. 열성 지지자들의 정보 제공과 호의는 진심으로 고맙지만 이 연구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게 제1원칙이었다. 오프라인 모임에 나가는 빈도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지

기, 2007; 한학수, 2006).

6) 이 논문에서 이니셜은 그들의 실제 성명의 이니셜이 아니라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임의로 붙여진 것이다.

지지자들을 알게 되었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다. 시위와 각종 모임 등은 시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촬영을 하였으며 촬영하지 못한 부분은 열성 지지자들의 자료로 대체하기도 했다.

심층 면접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데다가 황우석 지지자 내부에 프락치와 아르바이트생(흔히 '알바'라고 한다)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일부 단체장이나 운영자는 면접을 사양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은 면접 요청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아주 민감한 사안이 아니면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견해와 주장을 말해 주었다. 면접 시간은 통상 1~2시간 사이였다(때에 따라 3시간까지 가는 면접도 있었다). 질적 면접(qualitative interviewing)에서는 상대방, 상황, 면접자와 피면접자와의 관계에 따라 질문의 내용과 형식이 유연하게 바뀌지만(Rubin and Rubin, 2005) 크게 봤을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황우석 박사를 지지하는 이유
- 황우석 사태,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정보 획득 과정
- 온라인 활동 내용 : 가입한 인터넷 커뮤니티, 글 쓰는 빈도와 내용
- 오프라인 활동 : 집회 참여 횟수, 경험, 홍보 활동, 각종 기타 활동
- 황우석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 : 황우석 사태의 발생 원인, 경제적 관점, 줄기세포 연구와 난치병 치료에 대한 기대, 연구 윤리 문제, 논문 조작에 대한 의견
- 특허 논란 : 새튼의 특허 도용. KBS 문형열 PD의 <추적60분> 불방에 대한 견해
- 황우석 열성 지지자들의 비판에 대한 견해 : 스톡홀름 증후군, 맹목적 애국주의, 광신도
- 음모론에 대한 견해

이 논문에서 참여 관찰과 심층 면접 외에 자료 연구도 중요한 부분이다. 황우석 사태를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는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했다. 이에 필자는 어느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황우석 팀의 2004, 2005 사이언스 논문(Hwang et al., 2004, 2005), 서울대 조사위원회 보고서(2006), 검찰 보고서(2006) 등을 여러 번 읽었다. 황우석 사태와 관련해 이제까지 출판된 자료들을 수집, 분석하였으며 특히 사태 이후 황우석 지지자들이 펴낸 책들(고준환, 2006; 노광준, 2007; 문형열·정민권·리처드 유, 2007)도 분석하였다. 2006년과 2007년에 있었던 황우석 사태 관련 각종 세미나 자료도 확보하여 읽어 보았다.

2. 황빠에 대한 기존 견해의 한계

필자의 황빠에 대한 해석을 밝히기 전에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황빠에 대한 기존 견해의 한계를 지적, 비판하고 그들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황빠해석이 가지는 공통적인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황빠에 대한 자세한 관찰과 경험적인 조사가 결여된 인상주의적·심리주의적 해석이 주류를 이룬다. 둘째, 황우석 사태가 발생한 문화적·사회적 맥락을 무시하며 황빠 현상을 단순화 시킨다. 따라서 황빠 현상이 지니는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경들과 의미들을 보여주지 못한다. 셋째, 황빠 운동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기존 연구는 이들 문화와 운동의 역동성 그리고 역사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즉 황빠 역시 문화적·역사적 존재로서 민주적 공간에서 자신들의 활동을 변화시키고 구성해 나가는데 이러한 점들을 기존 연구는 보여주지 못한다. 이 세 가지 이유들을 종합하면 기존의 견해들은 황빠현상을 특정한 사회기술적 관계에서 파악하지 않고 단순한 집단적 심리현상으로 해석함으로써 황빠현상이 발생하는 독특한 사회적, 기술적, 정치적 요소들의 상관관계들을 보지 못한다. 여기서는 기존의 여러 이론 중 대표적인 세 가지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2-1. 스톡홀름 증후군

2006년 1월 3일 황우석 교수와 공동 연구를 진행해 온 문신용 교수는 논문 조작이 밝혀진 이후에도 황우석을 지지하는 것은 '인질 효과'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으며 황우석 비판자들에게 강력한 해석으로 자리잡았다. 1973년 스톡홀름에서 있었던 은행 강도 사건에서 인질들은 강도들을 비난하기보다 오히려 두둔했는데 이런 집단적 심리 병리 현상을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한다. 문신용은 황우석을 강도나 범죄자로 보고 있으며 그를 지지하는 국민이나 황빠를 인질로 비유한 것이다. 이 해석의 단점은 자명하다. '범죄자'와 '인질범'이라는 명확한 이분법을 제시함으로써 여러 주체들이 얽혀 있는 황우석 사태의 책임 소재를 단일화 한 것이다. 물론 황우석의 책임이 크지만, 황우석 사태는 범죄자와 인질처럼 확연하게 구분되지 않는 복잡한 사회기술적 관계망에서 발생했다. 황우석은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서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의 존재를 확신했던 것처럼 보인다. 검찰 수사 보고서(2006)는 황우석이 NT-2를 제보자 B가 있는 연구실로, NT-2, NT-3, NT4를 미국의 슬로언케터링 암 센터에 보냈던 걸로 보아 이것이 조작되었던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다. 즉 김선종의 조작을 황우석도 몰랐으며 이를 바탕으로 줄기세포 부풀리기를 시도한 것이라고 검

찰은 판단했다. 이렇듯 논문 조작은 복잡하고 우연한 과정에서 이루어졌는데 문신용 교수의 인질 효과 비유는 황우석 사태를 단순화 하여 도덕적 이분법을 만들어 내었다.

더욱이 이런 견해는 황우석 사태에 대한 공동 책임을 단일 책임으로 몰아붙이는 효과를 갖는다. '황우석 사태'에 있어서 황우석은 분명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장본인이지만 문신용, 새튼, 김선종, 윤현수, 정부, 언론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황빠 현상을 스톡홀름 증후군으로 규정짓는 것은 사회적·실험적 관계망에서의 황우석 사태를 단순히 개인의 비도덕적 사건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황우석 사태가 가지는 구조적·사회적·문화적 모순들과 문제점들을 덮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스톡홀름 증후군 해석은 공중의 과학이해가 보여 주듯이 공중이 과학자 사회와는 다른 규범과 가치를 갖는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황빠들 역시 황우석이 논문 조작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 동기가 순수하면 용서될 수 있다고 믿는다.⁷⁾ 논문 조작에 대한 황빠들의 다양한 해석을 스톡홀름 증후군으로 매도하는 것은 공중이 드러내는 다양한 가치와 의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2.2 인지 부조화 이론

황빠 현상을 해석하는 데 있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 중 하나가 '인지 부조화 이론'이다. 최종덕 교수(2006)⁸⁾는 인지 보수성과 이익 편향성이란 개념으로 황빠들의 인지 부조화를 설명하였다. 여기서 황빠들의 인지 부조화란 바뀐 실재를 거부하고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의 실재와 이후의 실재 사이의 인지 부조화는 인지 보수성에 의해 해결된다. 인터넷의 카툰 사이트인 링고의 피플카툰(ring.yahoo.co.kr)은 페스팅거(Festinger)와 그의 동료들이 1956년에 출판한 『예언이 실패할 때(When Prophecy Fails)』라는 책에 소개된 내용을 차용하여, 황우석을 사이비 교주로 그리고 황우석 지지자들을 광신도로 묘사하였다. 페스팅거는 인지 부조화 이론의 창시자로, 그의 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한 여자

7) 스톡홀름 증후군에 대한 한 황빠의 견해를 들어보자. "스톡홀름 증후군은 잘못된 비유예요 왜냐하면 박사님은 영웅이었지 강도가 아니었거든요 [중략] 범죄자도 아니에요, 절대로. 이건 범죄에 이용되는 논문이 아니었어요. 언제까지나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를 위한 동기가 무지 중요해요.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가 빨리 실현되고 상용화되면 인류에 혜택이 가는 건데 논문조작은 너무 작은 거예요. 이게 빨리 통과가 되기 위해서 빨리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이게 위해서 생긴 선의의 조작이라는 거죠" (2006년 10월 24일 면접)

8) 최종덕 교수의 글은 시론적 형태로 쓰여졌으나 언론들이 황빠 현상을 해석하는데 이론적 근거로 활용하였다. 이후에 최교수는 이 글을 수정보완하였다.

예지자가 대홍수가 지구를 뒤덮을 것이라는 내용을 외계에서 받았다. 그녀의 추종자들은 외계의 비행체에 의해 구원 받을 것이라고 믿었다. 예정된 날짜에 홍수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추종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바꾸지 않았다. 왜냐하면 추종자들의 믿음 덕분에 대홍수가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지구를 구했다는 메시지를 그 예지자가 받았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페스팅거와 그 동료들은 이들이 믿음을 바꾸지 않은 이유를 '인지 부조화 상태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황빠=인지 부조화 상태'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이 이론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인지 부조화 이론은 인간의 심리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메타이론이다(Harmon-Jones and Mills, 1999). 페스팅거는 1957년 자신의 이론에서, 두 개의 인지(cognition)가 연관이 있다면 서로 조화(consonant)를 이루든지 부조화(dissonant)를 이루는데 사람들은 이런 부조화의 상태를 줄이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보자. (1) 나는 사회학을 공부하고 싶다(조화로운 인지 consonant cognition : CC). (2) 사회학을 전공했을 때 직업을 구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돈이 되지 않는다(부조화로운 인지 dissonant cognition : DC). 이 인지 부조화를 줄이는 방법은 통상 다섯 가지가 있다. (a) 행위를 변화시킨다 → 사회학 공부를 포기한다 (b) 부조화로운 인지를 제거한다 → 사회학 공부는 직업과 돈과 관계가 없다 (c) 조화로운 인지를 강화한다 → 사회학 공부는 나에게 성취감과 행복감을 준다 (d) 부조화로운 인지의 중요성을 감소시킨다 → 돈과 직업은 사회학자들에게 중요하지 않다 (e) 조화로운 인지의 중요성을 증가시킨다 → 나는 사회학 없이는 못 산다. 여기서 문제는 인지부조화 이론은 인간의 심리를 설명하는 일반이론으로 황빠현상에 대한 '분석적 차별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즉 우리는 황빠와 사회학을 공부하고 싶은 사회학도 모두 인지부조화 상태에 있다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인지부조화론은 첫째 이들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답하지 못하며 둘째 왜 특정한 상황에서 황빠라는 특이한 주체가 형성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둘째, 인지 부조화를 이루는 두 개의 인지를 '연관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 황빠를 비판하는 인지 부조화 이론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1) 황빠는 황우석을 믿는다. (2) 줄기세포는 없다(또는 황우석은 논문 조작을 한 사기꾼이다). 이러한 두 개의 인지 부조화를 줄이기 위해서 조화로운 인지의 중요성을 증가시키거나 (그래도 나는 황우석을 믿는다) 아니면 부조화로운 인지를 제거하면 된다(황우석과 줄기세포의 존재 여부는 상관없다). 필자의 면접 결과 그들은 황우석을 신격화 하지도 않으며 황우석을 무조건 믿지도 않는다. 열성 지지자 대부분은 황우석의 논문 조작을 인정한다. 그들이 황우석

을 지지하는 이유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지만 — 황우석의 잘못에 비해 그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가혹하다는 것이다. 설사 줄기세포가 없다고 하더라도 황빠들의 인지는 별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줄기세포 연구에서는 여전히 황우석 박사 팀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스너피의 복제 성공이 단적인 예가 될 수 있다고 황빠들은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후에 소개될 면접 내용에서 드러나듯이, 황빠의 관심은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다는 것이다. 즉 그들의 초점은 현재의 실재라기 보다는 다가오지 않는 미래의 실재에 있다. 그들은 실수를 저지른 현재의 황우석을 용서하고 ‘미래의 황우석’에 희망을 걸며 미래에 실현될 줄기세포에 대한 기대감로 황우석을 지지한다. 인지부조화론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어떻게 현재를 인식하느냐에 대한 답을 해주지 않으며 또한 이러한 기대와 희망이 특정한 사회기술적 맥락과 관계속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

또한 황빠들의 초기의 믿음이 여러 증거들과 언론의 비판에 의해 흔들리거나 바뀐다는 점을 인지부조화론은 간과한다. 황우석에 대한 초기의 강한 믿음은 여론의 비판에 의해 흔들리며 황빠 진영은 논문 조작, 연구비 유용과 같은 점들을 받아들인다. 황우석에 대한 지지 입장과 논리가 단체와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황우석 사태를 자기 나름대로의 틀 안에서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다(자세한 논의는 3장 2절과 4장에서 논의). 따라서 황우석 진영은 다양한 의견과 관점으로 서로 충돌하여 이질적인 집합체로 진화한다. 심지어 황우석 지탄 국민연대처럼 황빠 진영으로 돌아서는 단체도 있고 가장 과격하게 지지했던 사람들이 황우석에 대한 의심을 가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인지 부조화 이론은 초기에 황빠 진영이 보여주었던 행동에 대한 심리주의적 해석에 치중했다면 필자의 분석은 장기간에 걸쳐 이들의 견해와 관점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황빠들 역시 초기의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논리 속에서 황우석 사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2-3. 유사 파시즘으로서의 ‘황빠’

최장집 교수는 2006년 1월 12일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가 주최한 ‘한국 사회 위기 진단과 희망 찾기’ 포럼에서 “노무현 정권이 생명공학 업적을 매개로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동원했으며 여기에 운동 세력의 열정이 결합되면서 비판이 금기시되는 유사 파시즘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한국을 생명공학 중심으로 내세운다는 정부의 업적 강박이 빚어낸 극우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연합”이라고

분석했다(인터넷 국민일보 2006년 1월 12일 보도). 이 발언은 황빠를 유사 파시즘의 유형으로 규정지으려는 시도에 영향을 미쳤다.

황빠는 1930~1940년대의 독일과 이탈리아의 정치적제도적 파시즘이 아니다. 파시즘 연구의 전문가인 로버트 팩스턴(2004)은 파시즘을 과정으로 보며 그 다섯 단계를 사회운동, 정치결사체, 권력 획득, 권력 행사, 지속적 지배라고 주장하였다. 이 기준에서 보면 황빠는 두 번째 단계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유사 파시즘으로서의 황빠는 정치적제도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는, 심성적문화적인 것이다. 전규찬 교수(2006, p.159)는 황빠의 파시즘적 심리를 이렇게 묘사한다. “막연한 신비주의에 매료된, 국익의 비합리적 기계론에 자신의 관념을 두고 이로써 애국적 국민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대중의 동형적 행위는 인터넷 ‘공동체’의 가입, ‘자발적’ 난자 증여 서약, 거리에서의 촛불 시위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들 행동의 기저에는 인종적 민족주의, 권위적 가족주의, 종교적 신비주의의 요소가 공통적으로 깔려 있다. 지도자와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의 자존심을 충족하고자 하는 민족적 나르시시즘, 진리 때문에 신화가 해체될까 봐 두려워하는 집착증적 정신착란, 숭배하는 ‘영웅’의 현신을 도덕률로 삼는 소부르주아의 마조히즘, 억압된 성적 욕망의 인공적 투사 혹은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오르기슴에 대한 열망과 같은 퇴행적 요소도 두드러진다.” 전규찬 교수 주장의 많은 부분은 『파시즘의 대중 심리』의 저자 빌헬름 라이히(2006/1933)에 따른다. 라이히의 이 저서는 1933년 파시즘이 한창인 때 쓰여졌으며 파시즘의 대중 심리는 전규찬 교수의 주장대로 인종적 민족주의, 권위적 가족주의, 종교적 신비주의, 과도한 국가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집회 현장을 도배하다시피 하는 태극기, MBC를 매국 세력으로 보는 시각, 향후 줄기세포가 상용화 되었을 때 예측할 수 있는 300조 원이 넘는 시장이 국가 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다는 믿음, 황우석 박사를 ‘Pride of Korea’로 표현하는 점 등 황빠들이 보여주는 상징들은 분명 민족주의적인 것이며 애국주의적인 것이다. 하지만 나치 독일이 가진 우생학적 인종우월주의와 황빠들이 가진 민족주의는 그 내용과 정치성에 있어 차이가 난다. 나치의 파시즘은 인종주의적이면서 광범위한 폭력을 동원하여 내부 정화와 외부 확장을 시도했다. 하지만 황빠의 민족주의는 인종주의적이지 않으며 광범위한 폭력의 동원과는 거리가 멀다. 이후에 기술되듯이 황빠들은 황우석 사태에 있어 논리적 결점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복잡한 맥락—황우석 사태의 복잡함, 언론에 대한 불신,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 등—에서 이 사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인다.⁹⁾ 여기서 이들은

9) 필자가 현장 조사를 마무리 지은 후 황우석 지지자 중 가장 과격하고 폭력적이라고 평가

맹목적으로 황우석을 이상화 하거나 신격화 하기보다는 황우석에 대한 비판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자신들의 견해와 이론을 정교하게 정립하려고 노력한다.

인지부조화론이 보여주는 맹점과 비슷하게 유사파시즘론도 황빠현상에 대한 '분석적 차별성'을 갖지 못한다. 유사파시즘론 또는 파시즘적 심성론은 월드컵의 붉은 악마, 황빠현상, 디워 논쟁 등의 사회적 현상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일상적인 권위주의와 차별을 이해하는데 광범위하게 동원되었다. 황빠현상에 대한 이러한 파시즘의 무차별적 적용은 즐기세포 연구가 가지는 미래주의적 아우라가 어떻게 정부, 언론, 과학자집단, 기업이 만들어내는 애국주의와 생명공학자본주의(biocapitalism) 담론과 결합을 하여 공중의 새로운 집단적 감성을 형성하는지를 보지 못하게 한다.

또한 필자와 황빠를 유사파시즘으로 해석하는 학자들 사이의 관점의 차이는 방법론적인 데에서 비롯된다. 비교적 오랫동안의 참여 관찰을 하며 경험한 황빠들은 민족주의적 열망과 민주주의적 이념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다. 첫째, 이들의 활동은 여러 언론과 지식인들에게 비판을 받는데, 이러한 영향 때문에 불법적인 시위나 집회를 자제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민주주의적 원칙과 틀 속에서 관찰시키려고 노력한다. 국가생명윤리법 개정을 위한 노력, 국회 세미나를 통한 여론 조성, 연구 재개를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 <추적60분> 방영을 위한 법적 투쟁 등은 파시즘과 거리가 있는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운동이다. 둘째, 여러 경로를 통해 황우석 사태에 대한 논리적 이해를 구축해 나가는데 그중 일부는 황우석 비판자로 돌아섰으며 상당수는 황우석 지지의 논리를 변형시켜 나가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언론사를 만들어 여론 투쟁을 하는 방법을 전개하는 등 비판과 토론의 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사태의 초기에는 확연히 유사 파시즘의 징후가 보였다 할지라도 이들이 이후에 보인 행동과 논리는 유사 파시즘과는 멀어 보인다는 게 필자의 견해다.

여기서 황빠들의 폭력성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공격 대상은 특정한 인종이나 집단이 아니라 황우석 사태와 관계된 특정한 개인이다.¹⁰⁾ <PD수첩> 1탄 방

받는 A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A는 황빠 진영에서 보면 그야말로 파시스트에 가까운 사람이다. 그는 자기가 여러 경로를 통해 분석하고 알아본 결과, 황우석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회의적인 생각이 있음을 고백했다. 이러한 갈등과 회의는 비단 A에게서만 목격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의 황빠들에게서도 마찬가지다. 오랜 기간 동안의 참여관찰과 심층 면접이 보여주는 장점은 유사 파시즘과 같은 인상주의적 비평과 다르게 주체의 갈등과 고민, 변화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다.

10) 심층 면접에서 한학수PD, 강양구 기자, 제보자 K는 황빠들로부터 민족의 반역자, 매국노, 배신자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다. 또한 개인은 물론 가족의 신변에 대한 위협을 자주 당했다고 말했다. 황빠들이 이들을 협박하는 정서와 논리는 다분히 민족주의적이다. 시간이

영 뒤 이 프로그램의 광고를 중지시켰던 일, 각종 학술 대회 방해, 한학수PD 및 반황우석 진영의 리더들에 대한 사이버 테러, 서울대 내에서의 각종 업무 방해 등은 분명 비판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행동을 유사 파시즘적 현상으로 결론 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초기에 이들이 보여주었던 과격하고 폭력적인 모습은 언론과 여론에 의해 비판을 받으며 결과적으로 역효과로 작용하였다. 황빠 지도 진영은 과도하고 폭력적인 방식이 황우석 지지 운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절차와 방법에 의해 주도해 나가려고 한다. 따라서 초기에 과격했던 황빠들은 내부 비판에 직면하고 지도 진영에 의해 배제되고 주변화 되었다. 이러한 운동 방식의 역동성은 황빠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민주적 공간에서 타협하고 조정해 나가려는 시도로 엿보인다. 따라서 파시즘을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로버트 팩스톤의 지적을 받아들인다면 황빠 현상도 '과정'으로서의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황빠 현상을 과정으로 이해했을 때 '유사파시즘'으로서의 황빠 해석은 논리적 설득력을 잃을 것이다.

3. 황우석 지지 이유와 황우석 지지자들의 형성과 활동

3.1. 황우석 지지의 이유

황우석을 지지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그가 가난한 집안의 농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언론과 각종 위인전은 그를 꿈을 이루기 위해 열정을 다 바친 의지의 한국인으로 묘사하였다. 둘째, 줄기세포 연구가 가져다 줄 이익과 한국의 위상 강화를 들 수 있다. 미래 줄기세포 시장이 300조 원이라든지 한국의 과학 발전에 기여한다는 강한 민족주의적인 이유다. 셋째, 난치병 환자나 가족들은 줄기세포 연구가 가져다 줄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황우석을 지지한다.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황우석을 지지하고 있으며 그에게 속았다고 생각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황우석 사태 발발 후 황우석의 갑작스러운 추락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황우석은 희생양이기 때문에 그를 구해야 한다는 지지자들이 있다. 이 네 가지 지지 이유는 서로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지지자의 성향과 지식에 따라 비중이 달라진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유에서 드러나듯이 황우석의 지지 이유가 현재의 논문조작 보다는 '미래의 줄기세포가 가져다 줄 가치'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난 현재는 메일이나 전화를 통한 협박이 현저히 줄었다고 한다.

먼저 가난한 농촌 마을 출신에서 세계 최고의 과학자로 알려진 황우석의 인생 역정에 대한 이미지와 그의 연구가 한국에 가져다 줄 이익과 자부심에 대한 기대는 황우석을 스타 과학자로 만들었다. 어느 30대 주부는 황우석 박사가 자신이 팬으로서 좋아하는 첫 번째 인물이라고 말한다. '박사님'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역경을 이기며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그녀는 평가한다. 그뿐만 아니라 얼굴도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고, 애국심까지 남다르니 그야말로 완벽한 인물이다.

제가 진짜 30년 동안 배용준이니, 장동건이니, 조용필이니 한 번도 빠져 본 적이 없어요. 스타에 대해서 무심했거든요. 그런 쪽으로 비유한다면 황우석 박사님은 저에게 생긴 그런 하나의 스타였어요. (중략) 세계가 인정하고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그런 국보급 과학자라고 인식이 됐어요. 그런 뉴스를 보면서,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가 난치병 환우들한테 희망이 되고 나라에 엄청난 국부를 창출할 수도 있다는 그런 글도 제가 봤고요. 그러면서 진짜 이걸 하늘이 우리에게 준 하나의 기회가 아닌가, 우리나라에는 자원도 없잖아요. 석유가 나는 것도 아니고, 땅이 큰 것도 아니고, 인력이 아주 풍부하지도 않고요. 일본 같지도 않고, 미국 같지도 않고, 중국 같지도 않고 하다못해 북한보다도 더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커버할 수 있을 만한 기술, 오직 박사님의 당시 유명했던 '젯가락 기술'이었어요. 민족적인 자부심도 높여주는 그런 거였고요.(30대 여성, 2006년 10월 24일 면접)

황우석에 대한 팬덤 현상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황빠들이 황우석을 신격화하거나 완벽한 인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황빠들은 논문 조작과 연구비 문제, 연구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황우석 박사의 잘못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려운 역경을 뚫고 성공한 사람이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한 강한 연민이 황빠들의 마음에 자리잡고 있다.

둘째, 황빠들은 줄기세포가 가져다 줄 경제적 이익과 한국의 위상강화를 믿기 때문에 여전히 황우석을 지지한다. 한 30대 황우석 지지자는 미래의 줄기세포 상용화로 인한 300조 원의 이익 실현을 믿고 있으며 그것만 된다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큰 목적을 위해서 조그마한 실수는 용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그녀는 항변한다. 이러한 미래주의적 비전은 국가발전의 담론과 결합하여 강한 민족주의적 열망을 만들어 낸다. 황빠들의 민족주의적 열망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는 어느 30대 남성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만약에 미국 사람이 그랬다면 저는 지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지를 하는 것이죠. 황우석 박사가 아니라 노성일 원장이었더라도 그를 지지했을 겁니다. (중략) [우리나라가] 미국이라는 거대 나라의 지배하에 있다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김 박사님[필자]도 코쟁이들[미국인들]한테 쌓인 게 있잖아요. 사실 민족주의를 완전히 버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우리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영어를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쓰고 있긴 하지만 혈연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지요. 가족애라는 게 밭다가도 한번 웃고 모여서 어찌고저찌고 하면 화해가 되고 하듯이 민족이라는 것 또한 잠재의식 속에 살아 있는 것 같아요. (2006년 10월 23일 면접.)

황빠들의 민족주의는 황우석, 언론, 정부, 바이오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비전과 희망의 담론에 영향을 받는다. 황우석은 직접 “줄기세포 치료가 실용화되면 비행 거리 4시간 이내에 살고 있는 20억 명이 우리나라를 찾을 수 있다”(조선닷컴 2004년 12월 28일)고 말하거나 줄기세포 연구가 한국경제를 견인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언론은 4장 2절에서 밝히듯이 줄기세포에 대한 경제주의 담론과 애국주의 담론을 결합시키고 확산시켰다. 정부 또한 황우석을 국가 최고과학자 선정하였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황우석의 실험실을 방문하였다. 더불어 정부출연연구소들은 줄기세포 상용화로 인한 수 조원의 경제적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정책담론을 생산해 내었다. 이처럼 황빠들의 경제적 비전과 희망에 대한 감성은 언론, 정부, 과학자집단의 ‘약속의 담론’과 맞물려서 형성되어졌다.

셋째, 황빠들은 줄기세포의 난치병 치료에 대한 강한 믿음을 드러낸다. 척수장애인 아들을 둔 40대 중반의 남자는 아들의 병을 고쳐 보려고 줄기세포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성체줄기세포에 의한 치료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배아줄기세포에 관심을 가지면서 황우석 박사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필자는 황우석 박사가 어느 TV프로그램에 나와서 장애인인 강원래 씨를 일으켜 세우고 싶다고 말한 것은 하나의 기만이 아니냐고 질문하고, 그와 같이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 연구의 효용성을 과대 포장한 것이 아니냐고 물어 보았다. 그러자 그는 “장애아를 둔 부모로서 그걸 기만이라든지 과대 포장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이의 나이가 지금 여덟 살인데 그것이 상용화 된다면 20년, 30년이라도 기다릴 수 있으며 심지어 성공하지 못해도 그 희망으로 삶을 살 수 있다고 대답했다.

피면접자 : 저는 가는 세대지만 애기는 앞으로 커 가는 세대고, 우리 아기가 결혼을 하면 후세가 나오겠죠. 그때 그 아기만이라도 건강해야 할 거 아닙니

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올인하게 된 거죠.

필자 : 황우석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황우석이] 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 부모들을 이용했다, 너무... [이런 말을 하는데요?]

피면접자 : 절대 아닙니다. (중략) 즐기세포 연구가 상용화되기까지 20년 내지 30년이 걸린다고 하였는데 저도 장애인이고, 제가 만나 본 척수장애인, 장애인 협회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부모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절대로 이용당했다고 얘기 안 합니다. (2006년 11월 26일 면접)

위의 인용에서 주목할 점은 황빠들이 황우석의 난치병 치료에 대한 비전을 진실/거짓의 이분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황우석은 환우들을 속인 것이 아니며 그의 약속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을 뿐이다. 황빠들의 마음은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증명될 수 없는 미래에 있다. 따라서 '현재의 진실'을 가리는 일종의 이데올로기가 황빠를 조정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즐기세포 연구의 '미래의 가능성'이 황빠를 움직이게 한다. 즉 황빠들은 '현재' 황우석의 논문조작에도 '불구하고' 황우석의 기술이 가져올 '미래'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국민 4분의 3이 아직도 황우석에게 연구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이다(황우석에게 즐기세포 연구 한번더 줘야 된다는 응답이 전체의 76.8%를 차지함. 중앙일보와 미디어 다음이 2007년 1월 조사. 중앙일보 풍향계 2007년 1월 25일 보도).¹¹⁾ 하지만 황우석의 희망과 비전의 정치는 한국만의 특성이 아니라 현대 생명공학이 지니는 일반적인 특성을 반영한다. 사라 플랭클린(Sarah Franklin, 1997)과 니콜라스 로즈(Nikolas Rose, 2007)가 말하는 것처럼 희망(난치병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과 두려움(과학의 발전과 개입이 없이 가만히 있으면 난치병을 고칠 수 없다는 두려움)의 감성적 생산은 현재의 바이오정치(biopolitics)와 바이오경제(bioeconomics)의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담론적 기제이다.¹²⁾

넷째, 황빠들은 반황우석 세력이 황우석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생각하며 그가 이러한 부당한 과정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한다. 40대 초반의

11) 필자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황우석 지지나 동조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나 인지부조화론, 유사파시즘론과 같은 단순한 논리로 이해될 수 없다는 점이다. 필자는 언론, 과학자, 기업, 정부가 만들어내는 미래주의 담론들이 이후의 장에서 기술되는 다양한 사회기술적 요소들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즐기세포에 대한 특수한 집단적 감성이 창발(emergence)된다는 점을 부각하고 싶다.

12)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은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생명공학연구에 투자하고 있다. 정부정책은 공공연구비 지출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생명공학에 대한 비전과 희망의 담론을 만들어내고 생명공학 기업들은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주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생명공학이 가져다 줄 거대한 미래의 가치를 설파한다.

한 남성은 우리 사회가 부당하게 한 개인을 매장시키려는 것에 대한 분노로 황우석을 지지한다고 말한다. MBC와 언론의 '황우석 죽이기'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 선행되기 전에 일어났으며 절차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MBC <PD수첩>의 보도 윤리 문제에 대해 비판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죽일 수 있는 언론에 대해 개탄했다.

MBC가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의 진실성, 연구자의 진실성을 따지자면 [시작부터] 밝혔어야지, 원래 1, 2탄 있다는 얘기 없었습니다. 분명히, 1탄으로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국민적 반발이 엄청나고, 그걸로 죽이지 못하고 YTN이 반대 취재를 하고 하나까, 제 상식에서 그 자체도 이해를 못해요. 무슨 언론이라는 게 저 새끼 죽이려고 대비해 놔. 1탄 만들어 놨다가 안 되면 2탄, 이런 건 아니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저 같으면 제가 욕심이 많아서 다 해라 아니면 원래 공개를 했을 것 같아요. 1탄, 2탄, 3탄, 준비돼 있다, 할 거다. 이런 것도 아니고 말야. 딱 터뜨리고 이 사람이 안 죽으니까 2탄을, 그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2006년 10월 17일 면접)

이 40대 남성처럼 황우석 사태 이후 황우석의 갑작스러운 몰락이 부당하게 느껴져서 황우석 지지 운동에 뛰어든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그의 몰락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것이었으며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못했다고 황빠들은 주장한다. 많은 논문 조작 사건이 상당한 기간의 조사를 거치거나 재연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고 개탄한다.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 특히 노성일, 문신용, 새튼은 황우석에게 등을 돌리고 자신들의 살 길을 찾기에 정신이 없었다고 비판한다. 마치 멜로 드라마처럼 벌어진 이 사건에서 이들은 배신자이며 황우석은 희생자로 여겨졌다. 너무나 극적으로 패자가 되어 버린 과학자에 대한 연민은 황빠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다.

3.2 황우석 지지자들의 형성과 활동

황우석 지지자들의 활동은 활동 공간의 측면에서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활동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지지 활동은 온라인에서 시작되어 각종 집회, 시위, 지지자 모임, 황우석 공판 참가, 운동회 등의 오프라인 활동으로 확대되었다. 우선 이들의 온라인 활동을 살펴본 다음 오프라인 활동에 대해 알아보자.

황우석 지지자들은 2005년 11월과 12월 사이 인터넷 사이트인 아이러브황우석 (cafe.daum.net/ilovehws : 일명 '알럽황')을 중심으로 모여들었다. 이 사이트는 향후 황우석 지지 카페의 분화와 진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인터넷 커뮤니티 중의 하나다. '알럽황'은 황우석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태일 씨가 카페지기를 맡아서 2004년 6월 8일 공식적으로 개설되었다. 황우석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5년 11월 이전까지는 회원 수도 적었고 올라온 글의 총 개수가 1,500개(자유게시판)를 넘지 않았다. 2005년 11월 1일부터 2005년 11월 21일까지는 약 180여 개의 글이 올라왔다. 그러나 황우석과 관련된 <PD수첩>의 제1탄 '황우석 신화의 남자 매매 의혹'이 방영된 2005년 11월 22일부터 이 사이트의 회원 수와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2월 19일에는 회원 수가 8만 명을 넘어선다. 2006년 12월까지만 해도 온라인 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며 아이러브황우석은 인터넷을 통해 <PD수첩> 광고 중단 압력, 1천 명 남자 기증 의사 전달식과 진달래 꽃길 행사, 여론전을 주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이러브황우석의 많은 회원들이 집단 집회를 요구했으나 운영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집회 요구를 하는 글을 삭제하거나 그런 주장을 하는 회원을 강제 퇴출(강퇴)했다. 오프라인에서의 활동과 집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이러브황우석의 회원들은 '황우석을 지지하는 네티즌 연대(일명 황지연, 2005년 12월 4일 개설)'를 만들고 2005년 12월부터 2006년 3월 1일까지의 집회를 주도한다. 이와 동시에 아이러브황우석에 동의하지 않거나 그들이 포괄하지 못하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거나 지역별 지지자 모임이 만들어졌다. 이처럼 아이러브황우석 중심의 인터넷 지지 운동은 2005년 12월과 2006년 1월을 기점으로 붕괴되고 황우석 사태와 관련된 여러 의견들과 관점들이 백가쟁명식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황우석 지지 인터넷 공동체의 주요 설립 일자다.

- 2005년 12월 4일 : 황우석을 지지하는 네티즌 연대(황지연)
- 2005년 12월 22일 : 황우석 지지 국민연대(후에 황우석 지탄 국민연대)
- 2006년 1월 7일 : 경기남부연합
- 2006년 1월 12일 : 어게인황우석
- 2006년 1월 14일 : 황우석 지킴이 불자모임(황지불)
- 2006년 4월 20일 : 황우석지지 광주모임(황지광)
- 2006년 7월 1일 : 민중의 회초리(민초리)

이와 같은 단체들 외에 황우석과 함께하는 부산시민연대, 황우석 지지 전주전북모

임, 황우석을 지지하는 기독교인 모임, 황우석을 지지하는 문학인 연대, 황우석 팀 연구 재개 촉구 교수 모임, 황우석 산악봉사단, 황우석 교수 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점프리 등 수십 개의 인터넷 커뮤니티가 2006년 생겼다.

인터넷에서의 활동은 다양하다. 초기에는 아이러브황우석을 중심으로 MBC <PD수첩>과 MBC <뉴스데스크> 광고 중단 압력이 이루어졌고 2005년 12월부터 2006년 3월 1일까지 황지연을 중심으로 집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황우석 사태와 관련된 수많은 정보의 교류, 반황우석 세력에 대한 성토, 황우석 사태와 관련된 각종 음모론, 애국주의에의 호소, 회원들끼리의 싸움과 갈등, 앞으로의 전략, 친황우석 관련 홍보물 제작, 집회, 시위, 학술 세미나, 각종 행사에 대한 선전과 공지 등이 이루어진다. 이들 인터넷 커뮤니티의 특징 중 하나는 황우석을 비판하는 의견이 묵살된다는 점이다. 그런 글들은 삭제되거나 또는 커뮤니티에서 강퇴를 당한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추측들이 난무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된 내용들의 이해가 전문적인 과학 지식을 요구한다는 점과 황우석 팀 연구와 관련된 사람들이 수십 명에 달해 황우석 팀 연구 전체를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도 이런 경향에 영향을 미쳤다.

집회는 광화문 근처와 청계천 일대에서 2006년 3월 1일 이전에 수천 명이 모이다가 3월 1일 세종문화회관 앞 시위에서는 최대 규모의 집회가 이루어졌다(황우석 지지자측 주장 : 2~3만 명, 경찰 추정 4천 명). 3월 2일부터는 황우석 박사가 검찰의 조사를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검찰청 앞에서 검찰 발표가 있던 5월 12일까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는 황우석 지지자들이 시위를 하였다. 그 이후에도 2006년 8월 15일 '과학 기술 독립 선포의 날'이라는 주제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를 가지는 등 각종 집회가 황우석 지지자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여의도 MBC, KBS 앞과 청와대에서 1인 시위가 계속되었다.

이들은 집회에서 피켓과 만장기로 의사를 표현한다. 이들의 구호 내용은 민족주의에의 호소, 음모에 빠진 황우석, 원천기술 확보, 한학수정명화정연주정운찬 등의 매국노 척결, MBC의 폐쇄, 한학수PD와 문형열PD 간의 토론회 요구, 황우석 사태의 진실 규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은 피켓이나 스티커, 만장기 등에 사용된 문구들의 일부 분이다.

- 황우석 박사님, 당신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과학자입니다
- 황 박사님은 음모에 빠진 것입니다
- 줄기세포 국부 유출, 정부는 책임져라

- 줄기세포 있다는 '문형열(KBS 팀)' 없다는 '한학수(MBC 팀)' 공개토론 촉구한다
- 매국 언론, 조폭 언론 MBC를 폐쇄하라
- Pride of Korea! [황우석 박사 사진과 함께]
- 원천기술 재연하여 줄기세포 검증하자
- 국민 여러분,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입니다.
- 우리 특허 못 지키면 검찰도 매국노다

다른 집회와 달리 특이한 시위 방법은 일명 '카퍼레이드' 시위이다. 황우석 지지자들은 차량행진대라는 팀을 구성하여 통상 토요일 낮에 위의 문구들로 이루어진 스티커와 깃발, 태극기 등을 차에 매달고 서울 또는 지방의 도심에서 선전전을 펼친다. 필자도 직접 차량 행진대에 끼어서 이들의 활동을 참여 관찰했다. 그들은 중심 차량에 큰 확성기가 있어서 황우석 박사 연구에 대한 지지를 시민들에게 호소한다. 차량 행진대는 큰 집회 때 50~100대까지 동원되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지지자들은 집회와 시위뿐만 아니라 생명윤리,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된 학술 대회나 심포지엄에 참가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한다. 필자가 현장 조사를 통해 경험한 바로는, 전문가들을 제외하면 이러한 학회에 참여한 일반 시민의 대부분이 황빠들이었다. 이들은 또한 생명윤리법 개정 과정에서 황우석 박사 팀에 유리하도록 로비 활동이나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황우석 지지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황우석 지지 그룹의 집단 역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황우석 지지자들의 모임이 온라인에서 본격적으로 형성되었을 때는 '아이러브황우석'이 구심점이었다. 앞서서도 설명했듯이, 이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진은 회원들의 집회와 시위 요구를 삭제하거나 그런 회원을 강제 퇴출함으로써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격분한 일부 회원들은 사이트의 카페지기(최고운영자)인 윤태일 씨(닉네임 빈주)를 황우석 지지 세력과 황우석을 분열시키려는 '프락치'로 공격하였고 여러 방법을 통해 위협을 가하였다.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개의 다른 친황우석 인터넷 커뮤니티가 생겨났다. 여러 단체들 중에서 2005년 12월부터 2006년 3월 1일까지의 오프라인 활동을 주도한 것은 '황우석을 지지하는 네티즌 연대(황지연)'였다. 하지만 황지연 중심의 황우석 지지 세력의 결집은 2006년 3월 1일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붕괴되었다. 황지연 측은 황우석 지지를 표명하되 평화로운 축제 분위기에서 집회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다. 연단이 만들어지고 연사들이 나와서 황우석 지지를 호소하는 동시에 노래를 부르고 불꽃을 터뜨리는 등 애초의 기획대로 되는 듯했다. 그러나 좀 더 전투적인 집회를 원했던 일부 회원들은 지금 한가로이 노래를 부르며 불꽃이나 터뜨릴 때냐고 강력하게 항

의했다. 다음날(2006년 3월 2일) 황우석은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검찰로 출두할 예정이었다. 일부 강경 지지자들은 연단을 장악하려 격렬한 몸싸움을 하기도 했으며 마이크를 빼앗고 도로의 일부를 점거하였다. 이들은 MBC로 쳐들어가는 강경한 제안까지 하였다. 집회가 끝나고 난 뒤 강경파들은 이 집회를 후원한 Q여인을 다시 프락치로 지목하였다. Q여인의 사주에 의해 31절 집회가 김빠진 사이다 꼴이 되었으며 적을 눈앞에 두고도 돌아서야 했다고 비판했다. Q여인을 두둔하는 황우석 지지 그룹도 프락치나 프리메이슨 등으로 몰려 황우석 지지 그룹은 내부 음모론에 휩싸인다. 이와 더불어 방향성과 방법론이 맞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갈등 관계에 있는 회원들을 프락치, '알바', 프리메이슨 등으로 몰아 회원 서로 간의 불신이 팽배해졌다. 서로를 헐박하는 과정에서 회원들끼리 고소와 고발이 여러 차례 있었고 개인적인 물리적 싸움도 몇 건 있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황지연은 급격하게 흔들렸으며 황우석 지지 세력은 구심점을 잃었다.

2006년 3월 1일 이후에 세 가지 문제가 황우석 지지 운동의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 중 하나는 2006년 3월 2일부터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한 황우석 박사의 변호사 선임에 관한 것이었다. 일부 핵심 지지자들은 황우석이 지명한 변호사 대신에 이름이 잘 알려진 Z변호사로의 교체를 요구했다. Z변호사는 끝내 황우석 측 변호사로 선임되지 않았지만, KBS 측을 상대로 문형열PD가 제작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가제)'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주도했다. Z변호사는 불교방송에 나와 황우석 사태에 음모가 있다고 주장했다. Z변호사는 기존 변호사를 교체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지만 황우석 박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Z변호사 측을 옹호하는 황우석 지지자들과 그렇지 않은 지지자들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생겨났다.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은 황우석 지지 국민연대(황지국)가 2006년 4월에 황우석 지탄 국민연대로 명칭을 바꾸어 황우석 지지를 철회한 것이다. 더 나아가 이 단체는 황우석을 과학 사기꾼으로 규정하고 황우석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였다. 황지국의 입장 변화는 언론에 의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황우석 박사에 대한 정당성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의 수를 확대하는데 한몫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5월에 있었던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황우석 지지 모임을 정치 세력화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황우석 지지 그룹 사이에서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일부 회원들은 정치 세력화에 찬성하여 다른 단체를 만들었다. 이와 같이 내부 프락치론과 음모론, 변호사 선임 문제, 지지자들의 지지 철회, 지방선거 등의 문제로 황우석 지지 운동은 분열과 갈등을 거듭하며 통일된 조직을 꾸리지 못한 채 수십 개의 단체로 나뉘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지지 단체가 주도권을 장악하는 상황은 사라졌다. 합동 집회나 시위, 황우석 박사의 연구 재연 기회 보장을 위한 백만 명 서명 운동, 정해준 씨 추모제 등은 한 단체가 주도하지 않고 협의를 거쳐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공동 협의체 방식은 단체들의 합의를 끌어내는 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단체끼리의 갈등 때문에 이런 공동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 단체들도 있다. 황우석 지지 운동의 구심점이 없고 서로가 주도권을 쥐려고 하기 때문에 운동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상태에서 황우석 지지 단체들은 사안별로 협력하거나 아니면 독자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지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황빠 진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사안과 이슈별로 나뉘는 형태를 보인다. 아이러브황우석, 민중의 회초리, 황우석을 지지하는 네티즌 연대, 점프리 등 많은 단체들의 주장과 구성이 각기 다르다. 따라서 황우석 지지 진영은 시공간의 동태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동질적인 집단이 아닌 이합집산의 과정을 겪는다. 전략의 차이, 황우석 사태에 대한 이해와 관점의 차이, 리더의 차이, 구성원들끼리의 다툼 등이 이러한 역동성과 이질성의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¹³⁾

4. 음모의 문화, 책임전가의 정치

4.1. 음모론

황우석 사태는 왜, 어떻게 발생했을까? 김선종은 왜 무모하게 줄기세포 섞어 심기를 했을까? 자신이 직접 참가한 2004년 사이언스 논문도 조작임을 제보자는 몰랐을까? 황우석은 왜 그렇게 서둘렀으며 줄기세포 부풀리기를 지시했을까? 무명의 박사 과정 학생과 농사 짓는 과학도가 발견할 정도의 오류를 사이언스지는 왜 발견하지 못했을까? 검찰 수사 결과와 서울대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문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 황우석 사태는 한국 사회의 위기를 초래했으며 이러한 위기는 설명을 요구한다. 황우석 사태와 같은 큰 사회적 사건에 대한 원인 규명과 설명은 우리의 가치 그리고 정체성과 연관된다. 하지만 중대한 사건은 단일하고 의미가 보다는 다양하고 경쟁적인 의미들이 만들어낸다. 황우석 사태에 대한 충돌하는 여러 해석들 속

13) 황빠들을 묶어 주는 공통의 요소는 당연히 '황우석 지지'다. 황빠들의 분열은 황우석 지지 운동에 있어서의 방식과 전략의 차이, 음모론에 대한 이해의 차이, 리더십과 인간관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후에 설명하는 음모의 문화와 책임전가의 정치는 황빠들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진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화적 현상이다.

에서 황빠의 음모론은 황우석 사태를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음모론의 배경에 뿌리 깊은 불신의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Fenster, 1999). 이것은 황우석 사태의 발생 과정에서 보여준 사회 체제의 질과 관계가 있다. 정부, 언론, 과학계 등 지배적 사회 체제의 미숙과 착오가 황우석 사태를 혼란으로 빠뜨렸으며 혼란, 모호함,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개방성, 공정성, 연대성은 불신의 팽배에 의해 깨져 버렸다. 신뢰의 상실은 곧 시민 사회와 정치, 사회 체제가 그만큼 건설하지 못하다는 증거다(Offe, 1999, p 70). 결과적으로 논리에 기반한 정치적 담론의 정당성이 결여되고 스캔들, 소문, 음모 등으로 대체되는 '무드정치(mood politics. Grossberg, 1992, p. 277)'가 지배적으로 작용한다.

황빠들의 음모론은 다양하다. 스케일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지역적이고 작은 규모의 음모론(petty conspiracy: 국내 음모론)과 글로벌 음모론(global conspiracy: 국제 음모론)이 있다. 전자는 서울대 의대 카르텔 음모론, 삼성 음모론 등과 같이 한국의 엘리트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황우석을 축출하려 했다는 논리다. 후자는 프리메이슨, 미국, 유대인, 국제금융자본들이 개입하여 한국의 줄기세포를 훔치려 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고준환 교수(2006)처럼 국제 음모론과 국내 음모론을 연결시키는 사람도 있다. 황우석 사태는 프리메이슨의 보이지 않은 계획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국내 세포응용사업단과 서울대 의대 카르텔이 연계한 음모라는 주장이다. 황우석 지지자 중에는 이 전체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프리메이슨을 빼고 국내 부분만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국제 음모론보다는 국내 음모론을 믿는 황빠들이 많아졌다.

황빠들에게 있어 거의 모든 사람이나 세력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다. 왜냐하면 황우석은 가장 가까운 김선종과 제보자 K에게 배신을 당했고 새튼 또한 다른 목적으로 그에게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정부와 언론도 한순간에 등을 돌렸으니, 세상에 정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것이 이러한 음모론의 전파와 관계가 있다. 심지어 황빠들 내부에 알바, 프락치, 국물(자신의 이익을 위해 황우석 지지 운동에 뛰어들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허다하다. 정황이나 사건이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울때 이런 소문은 더 더욱 전파되기 쉽다(Goldstein, 2002, p. 47). 음모론이 일어나는 또 다른 이유는 황우석 사태가 너무나도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이다. 30대 여성 지지자는 음모론이 생기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피면접자 : 저네요, 그 당시는 프리메이슨 얘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음모론

이 한 번씩 나왔을 때 슬쩍슬쩍 현혹은 됐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쪽 지내 오면서 음모론은 없다고 봐요. [중략]

필자 : 그러면 왜 이렇게 음모론이 황우석 지지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퍼진다고 생각하세요?

피면접자 : 그건 간단해요. 진실 하나가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있는데도 나라에서 못하게 하고 완전 다 말살시키고 사람 다 죽여 놓고 있는데 못하게 하니깐 '이건 뭔가 있다'라는 음모론이 생겨난 거죠. 소설들이 쓰여진 거죠. 너무 이상하니까. [중략. 필자와 피면접자 사이의 대화가 오고 간 다음에]

필자 : [음모론에 대해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묻는데 음모론으로 가서, 음모론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피면접자 : 조금 있죠. (웃음)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조금 있다고 보는 건 뭐냐면 서울대 쪽, 서울대 의대와 수의대, 수의사와 의사의 자존심, 박사님 연구는 분명히 병원이 망할 만한 그런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진한 글자: 필자강조. 2006년 9월 28일 면접)

필자는 이 지지자에게 국내 음모론의 증거가 있느냐고 물어 보았다. 물론 그러한 음모에 대한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고 말한다. 많은 지지자들이 서울대 의대와 세포융용사업단 음모론과 MBC와 연계된 삼성 음모론을 말할 때 마다, 내가 증거가 있느냐고 물으면 대부분은 증거가 없다고 답했다 : “증거가 있으면 지금 이려고 있겠어요? (중략) 제가 그걸 밝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제가 지금 이려고 있겠냐고요 어디 가서 한자리 하고 있겠지” (30대 여성 지지자). 음모론의 형성에 대해 위에서 인용된 “너무 이상하니까”라는 말은 의미심장하다. 황우석 지지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황우석 사태는 어떻게 일어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 무엇’이다. 한국과학계, 언론, 권력 기관(청와대와 국정원) 그리고 세계과학계가 어떻게 조작을 모를 수가 있었을까? 영웅으로 추앙 받던 한 과학자가 어떻게 갑자기 국가적 망신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을까? 과연 황우석 박사 팀의 줄기세포 연구 기술력이 세계적 수준인가? 새튼은 왜 먼저 특허를 신청한 것일까? 의문에 의문이 꼬리를 문다. 바로 여기에 음모론의 핵심이 있다.

음모론은 해답 대신 끊임없는 질문을 양산한다. 황빠들은 음모론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모은다. 새튼, 노성일, 문신용, 정운찬, 김선종, 프락치로 의심되는 위장 황빠들, 삼성과 이견희, 프리메이슨 등 이들의 배후를 열심히 알아본다. 그들은 세계 금융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줄기세포에 대해서도 박식한 듯 보인다. 하지만

아도르노가 지적했듯이, 이들은 '통찰 없는 박식함(semi-erudition, Adorno 1994, p. 161)'의 상태일지도 모른다. 통찰 없는 박식함(semi-erudition)이란 많은 사실을 알고 있지만 종합적인 판단력과 이해력 그리고 현상에 대한 지적 통찰이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인터넷과 미디어가 쏟아 내는 황우석 사태에 대한 수많은 사실들을 황우석 지지자들은 알고 있다. 사실 필자는 황우석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자료를 얻었다. 예를 들어 줄기세포 연구의 해외 동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 명단, 황우석 신뢰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된 각종 학회에 대한 정보 등이다. 하지만 필자가 심층 면접한 황우석 지지자들 중 황우석 사태 이해의 핵심 자료로써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2004년과 2005년 논문, 서울대 조사위 보고서, 검찰 수사 결과를 자세히 읽어 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황우석 지지자 중 최고의 이론가로 꼽히는 W씨는 예외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그의 의견과 해석을 존중하나 여러 부분에서 동의하지 않는다).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음모론에 빠지는 것을 통찰 없는 박식함의 상태라고 하겠다.¹⁴⁾ 이것은 곧 황우석 사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는 시도로 이어진다.

따라서 음모론은 곧 '연결에의 의지(will to connect, Parker 2001, p. 204)'다. 이것은 다양한 사건들이 일련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그것을 관통하는 질서나 논리를 찾으려는 욕망이다. 모든 음모론의 특징은 분절된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서 출발한다. 911 사태를 음모론으로 해석한 '루스 체인지(Loose Change)'는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사건이 일어났으며 모든 현상은 우연이 아니라 그 계획의 필연 안에서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모든 사건은 이제 질서정연한 논리 체계를 이룬다. 고준환 교수는 황우석 사태를 프리메이슨과 미국 정부, 새튼과 연결한다. 국내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문신용, 노성일, 정운찬, 서정선 등 경기고—서울대 라인과 세포응용사업단을 연결시킨다. 어떤 지지자는 이들의 배우자들이 졸업한 모 여자대학교를 지목하여 이들의 연결 고리를 만든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은 연결되고 음모론은 확실한 근거를 갖게 된다. 여기서 모든 우연적인 요소는 필연이 되는 것이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무엇에 의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위에서 보았듯이 음모론은 음모를 계획하는 세력의 이익이나 권력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즉 황우석 죽이기는 프리메이슨이나 미국, 서울대 의대나 삼성의 이익과 권력

14) 하지만 필자는 정보화 시대에 이런 통찰 없는 박식함(semi-erudition)의 상태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쏟아지는 정보를 선별하고 판별해 내는 어려움은 아마도 누구나 겪는 일일 것이다.

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황우석 지지자들은 믿는다. 이것이 바로 필자가 주장하는 사회과학주의(social scientism)의 전형이다.

과학주의(scientism)가 과학적 논리나 방법론이 통하지 않는 곳에 무리하게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라면 사회과학주의(social scientism)는 사회과학적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그 개념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사회과학적 설명 방식 중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이 이해관계와 권력관계다. 즉 황우석 지지자들은 황우석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 과학적 사실관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권력관계와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그들은 황우석 사태가 일어난 구체적인 과학기술적 관계들을 보지 않는다. 그 모든 물질적 현상들도 사회적 관계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건의 우연성 또는 비결정성에 대해 등을 돌리고 사건 이면에 숨어 있는 무언가를 더 중요하게 부각시킨다. 이것은 나이트(Knight, 2000, p. 230)가 말하는 '뒤를 캐는 논리(behindology)'의 일종이다. 나이트는 음모론과 사회과학의 유사성에 주목한다. 칼 마르크스는 역사 발전의 동력으로 계급투쟁을 들고 나왔다. 그것은 당시 표면화 되지 않은 문제였다. 애덤스는 시장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뒤르케임은 사회 현상을 '보이지 않는 집단적 규범과 힘'에서 찾는다. 이처럼 사회과학의 특징 중 하나는, 현상과 원인이 연결되어 있으며 원인은 우리의 등 뒤에서 작동한다는 설명방식을 취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음모론과 사회과학적 설명 방식이 유사한 이유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음모론을 믿는 것이 곧 스톡홀름 증후군, 인지 부조화, 광신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루스 체인지(Loose Change)'에서의 음모론을 믿거나(독일 국민 20%가 911 사태를 음모론으로 본다는 슈피겔지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미국과 유럽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911 음모론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오마이 뉴스 2006년 9월 11일 보도) 케네디 암살의 배후에 음모가 있다고 믿는 사람을 정신 이상이나 심리 이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한국 국민들 상당수는 왜, 어떻게 황우석 사태가 일어났는지 자세히 알지 못한다. 음모론은 신뢰할 수 없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너무 이상한' 사건에 대해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안이다.¹⁵⁾ 따라서 음모론은 황우석 사태라는 이해하기 힘든 사건을 사회과학주의에 의해 푸는 지름길인 것이다.

15) 여기서 필자는 음모론과 불신의 문화간에 '상황적' 관계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지 '인과적인'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음모론의 논리 구조는 사회과학주의의 형태를 취하는데 이것이 황우석 사태의 복잡함과 맞물려서 황빠들의 음모론적 해석을 낳고 있다. '너무 이상한 사건'에 대한 사회과학적 설명 방식이라는 필자의 해석은 황빠들의 진술을 재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2 책임전가의 정치

공중의 과학 이해는 인지적인 공간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도덕적 투쟁의 공간임을 명심해야 한다. 여기서 과학자 사회가 가지는 규범과 일반인들이 가지는 규범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정확하게 말하면 황빠들은 황우석 사태라는 스캔들 속에서 논문 조작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는 세력에 대한 도덕적·정치적 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 눈에는 새튼, 노성일, 문신용은 배반자이며 MBC <PD수첩>, 제보자, 강양구 기자는 매국노다. 다른 한편 무수히 많은 비리와 부정으로 얼룩진 한국 사회에서 논문 조작으로 인한 황우석 교수의 처벌은 너무나 가혹한 것이라고 황빠들은 주장한다. 첫 번째가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책임의 배분 문제라면, 두 번째는 논문 조작에 대한 책임의 경중 문제다.

우선 지지자들은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인해 황우석이 그렇게까지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아울러 황우석이 입은 피해에 비해서 음모를 꾸민 쪽은 그 피해가 미미하거나 없다고 주장한다. 황우석은 서울대 교수직에서 해임되었고 정부의 연구비 지원이 중단되었으며 무엇보다도 과학자로서의 명성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30대 초반의 여성은 황우석 박사의 처벌을 '장발장이 빵을 훔친 죄로 19년의 옥살이를 한 것'에 비유한다. 지은 죄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는 것이다. 열성 지지자들은 무엇보다 새튼과의 처벌의 형평성에 대해 분개한다. 피츠버그 대학은 그에게 논문 조작 가담 혐의가 없다고 발표하였다. 황빠들은 이것은 부당하며 새튼이 한국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만 전체적인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논문의 주요 부분을 작성하고 황우석에게 연구의 압력을 가한 이도 바로 새튼이라는 것이다. 황우석 팀의 실험 역량이 커지자 새튼은 자진해서 한국에 와 황 박사의 실험실을 구경했으며 이를 계기로 가까워졌다고 황우석은 말한다. 이런 그의 발언은 황우석 팀의 줄기세포 연구에 있어 새튼의 지위와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학수 PD(2006)의 취재 파일에서도 새튼은 황우석 팀의 논문이 사이언스지에 게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히고 있다. 열성 지지자들은 연구를 진행한 동료로서 새튼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황우석 팀의 줄기세포 연구는 공동 연구였다. 황빠들은 체세포핵이식에서부터 배반포를 만드는 단계는 서울대 수의대 팀이 담당하고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것은 미즈메디 병원이 담당했다고 주장한다. 결국 줄기세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즈메디 측의 잘못이라는 것이다. 김선종은 미즈메디 소속으로, 섞어 심기를 통해 황우석 팀을 속

였으며 결국 그의 잘못으로 이 사태가 전개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더 나아가 '일개 연구원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과감하고 무모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황빠들은 제기한다. 분명 김선종의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황빠들은 서울대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피츠버그 대학은 새튼을 보호했는데 서울대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정명희 조사위원장은 황우석 팀의 기술 수준을 평가절하해서 의도적으로 황우석을 죽이려고 했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서울대 정운찬 총장 또한 황우석 박사를 보호하지 않고 시기와 질투에 의해 그를 내쳤다고 지지자들은 주장한다. 서울대 의대 출신들 특히 문신용 교수는 황우석 사태에 큰 책임이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황빠들은 주장한다.

황우석 사태는 상당 부분 언론에 책임이 있다고 열성 지지자들은 대답한다. 그들은 한학수PD가 김선종을 미국에서 취재할 때 보도 윤리를 위반한 것에 대해 비판적이다. 뿐만 아니라 KBS의 문형열PD는 새튼의 특허 도용을 방영하려다 KBS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 분개한다(가제 :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KBS에 맞서 황우석 지지 국민 변호인단은 법원에 테이프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2006년 9월 2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계 각국에서 줄기세포 원천기술 특허 획득에 관련된 중요한 사회국가적 이슈의 제기 및 그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테이프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미디어 <오늘> 2006년 9월 28일 보도). 테이프가 공개되면 국민들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KBS의 주장은 독재 시대의 논리라고 황빠들은 반박한다. 법원의 정보 공개 결정 승소 판결은 정연주, 이원군 등의 간부들이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하여 정보 공개를 못하도록 했다고 그들은 성토했다.

더 나아가 황빠들은 황우석 박사 지지와 자신들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희망은 언론과 정부의 영향 때문이라고 말한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정부와 언론에 대한 비판은 황빠 진영과 황빠 진영 모두에게 공통된 점이다. 우선 언론에 대해 언급해 보자. 필자가 심층 면접을 통해서 밝혀 낸 것은, 황우석과 황우석 사태에 대한 황빠들의 견해는 거의 모두 언론과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에 의한 것이다. 황우석 사태 이후 언론학자들은 질적 방법론에 의한 접근뿐 아니라 정량적인 방법을 통해서 황우석 관련 보도를 연구하였다. 반현(2006)과 최영재(2006)는 정량적 방법을 통해 각각 방송과 신문의 황우석 뉴스 프레임의 연구를 했는데, 황우석 사태 발생 이전 가장 중심 내용은 '황우석 영웅화'와 '애국주의'였음을 보여준다. 일부 방송과 신문의 헤드라인을 인용해 보자(반현 2006, p. 191; 최영재, 2006, p. 235).

· '신의 손' 황우석, 질병의 고통에서 인간을 해방시킬 것인가 병든 세포를 새 세포로 바꾸는 길 열다

(조선일보 2005. 5. 20.)

- 수백조 원 경제적 가치 (KBS 2005. 5. 20)
- 황우석 교수, "과학자에겐 조국이 있다" (KBS 2005. 6. 7)
- '또 하나의 산업 혁명' 세계 찬사 쏟아져 (SBS 2005. 5. 20)
- 황우석 교수, "난치병 치료 대한민국 이름으로" (YTN 2005. 6. 25)
- 황우석 교수, 그가 세상을 또 놀라게 했다 (동아일보 2005. 5. 20)

황우석 지지 이유 파트에서 밝혔듯이, 황빠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민족주의적 열망과 미래주의적 비전은 언론의 애국주의, 경제주의, 미래주의 담론의 확산과 연결되어 있다.¹⁶⁾ 흥미로운 현상은 황우석 사태 이후에 대부분의 주요 언론들은 황우석에 비판적이지만 줄기세포 연구가 계속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 미국 등의 줄기세포 연구 진전을 보도하면서 줄기세포 연구는 계속되어야 하며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다급함과 다른 나라에 기회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주요 담론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러한 감성의 형성은 황우석 사태 이후 생명윤리법 개정 운동과 같은 황빠들의 집단행동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정부의 대응 또한 황우석 사태를 더욱 증폭시켰으며 황빠를 포함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이 사태 이전 황우석 박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였다. 그는 황우석 팀 실험실을 방문하여 줄기세포 연구 성과에 대해 "감동과 느낌이 넘쳐서 몸이 떨릴 만큼 감전됐다"고 발언하였다. 황빠 중 한 명은 "국정 최고 책임자가 황 박사 연구실까지 찾아가서 격려해 주고 텔레비전 뉴스에도 크게 나오고, 마침내 노벨 의학상을 받을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라고 말하며 노무현 대통령의 행보가 황우석 지지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증언했다. 40대 초반의 황우석 지지자는 이렇게 말한다.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보고요. 이런 시스템의 오류도 정부가 제대로 했으면 이르지 않았겠죠. (중략) 박기영 보좌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업무 과다로 인해서 자기가 직접 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얼마든지 시스템으로 검증할 수 있는 부분

16) 김희원(2006)은 황우석 사태를 취재했던 기자들을 심층 면접하여 뉴스 생산자의 관점에서 황우석 사태 보도에 대한 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스타 만들기와 민족주의 경향은 한국 언론의 문제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목격할 수 있다(Felt, 1993; Nelkin, 1995). 불확실한 과학 사건의 경우 언론과 과학은 다른 가치와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서로 협조하기도 하고 서로 충돌하기도 한다(Stocking, 1999; Zehr, 1999).

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아쉬워요” 즉 황빠들은 정부가 민주적 통제와 틀 속에서 제대로 검증할 수 없었던 것이 황우석 사태를 불러 온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줄기세포 연구 거버넌스 실패는 황우석의 줄기세포 연구의 지원과정 뿐만 아니라 정부측의 책임회피 등 황우석 사태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타났다.

열렬한 황빠에서 지금은 황우석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황우석지탄국민연대의 대표 M씨의 설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황빠로 돌아서기 전 황우석을 위해서 “죽는 것도 영광”이라고 생각하였고 “황 박사님과 같이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 세상에 있나, 신비롭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예수보다 더 순수한 분이라고 생각했죠”라고 말했던 인물이다. 그는 언론과 정부가 황우석을 국민의 영웅으로 마음에 각인시켰기 때문에 황빠 현상이 일어났다고 설명한다.

황우석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비정상적인 사람은 없어요. 모두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황우석 이데올로기에 속고 있지요. 언론에 의해 각인이 되어서 안 지워지는 거예요. 현 정권이 각인을 시켰으면 그것을 풀어 줘야 하는데 그런 노력도 안 하잖아요. 그것을 풀려면 두 배, 세 배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중략) 일반 국민들의 능력으로 황우석 사태를 세세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언론을 통해서 접근하기 때문이죠. 그 전에 언론들이 황우석을 띄우다가 갑자기 아니라고 하니 믿기가 힘들죠. 언론의 잘못이 아주 큼니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나섰어야 했는데 그렇지도 않았죠. (2006년 8월 8일 면접)

황빠든 황까든 언론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이들의 공식적인 사과와 사태 수습이 없었기에 한국 사회에 대한 불신이 더욱 증폭되었다.

이 장에서 황빠들 자신이 언론과 정부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황빠현상은 황우석 과학기술복합동맹¹⁷⁾(황우석팀, 언론, 정부와 정치세력, 경제계와 의료계, 황우석 지지자로 이루어진 잡종적 연결망. 김종영, 2006)의 동맹효과와 그 여파에 의해 일어나는 사회기술적 현상이지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다. 황빠들의 집단적 감성 또한 언론과 정부의 친줄기세포 담론에 의해 형성되어졌다. 따라서 언론의 친줄기세포 담론 유포와 정부의 줄기세포 연구 거버넌스 실패가 황빠현

17) 과학기술복합동맹이란 과학기술적 요소들이 정치적·경제적·이데올로기적·문화적 요소들과 결합된 잡종적 연결망임을 뜻한다 (김종영, 2006, p. 86-87)

상을 일으킨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5. 결론

황빠 현상에 대한 기존의 견해들은 황우석 사태와 황빠 현상을 복합적이고 구체적인 사회기술적 관계 속에서 이해하지 않고 심리주의적 환원주의로 이해하려 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기존의 견해를 비판하는 동시에 황빠 현상을 다차원적인 정치·도덕·적·과학적 요소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하려 노력하였다.

먼저 이 글은 황빠현상의 주요 측면으로 황빠의 민족주의적 열망과 미래주의적 비전과의 결합에 주목했다. 황빠들이 실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인지부조화론이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론은 과학기술 특히 줄기세포 연구와 정부, 기업, 언론이 함께 만들어 내는 희망과 비전의 정치경제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황빠들에게는 '현재의 실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이 중요한 것이다. 즉 황우석의 논문조작에도 '불구하고' 줄기세포 연구가 가져올 미래가치에 대한 희망을 황빠들은 포기할 수 없다.

또한 황빠현상은 한편으로 정부, 언론, 과학자 등을 포함한 한국사회체제에 대한 불신과 다른 한편으로 황우석 사태의 복잡함과 이해하기 어려움과 연결되어 있다. 신뢰는 동료 시민들과 사회체제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들이 일관성, 투명성, 정직성을 가질 때 신뢰는 커진다. 황빠들은 황우석 사태와 연관된 주요 행위자들이 일관성·투명성·정직성을 상실했다고 생각한다. 황우석 사태 초기에 <PD수첩>은 거짓과 협박을 동원함으로써 투명성과 정직성을 상실했다고 황빠들은 생각한다. 새튼은 특허도용 때문에, 김선종은 줄기세포 섞어 심기 때문에, 노성일, 언론, 정부는 황우석의 협조자에서 비판자로의 입장을 변경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다고 황빠들은 주장한다. 이들을 신뢰할 수 없고 그들의 동기를 의심하기 때문에 황빠들은 직접 자기들이 나서서 황우석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황우석 사태는 황빠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인데 이것은 황우석 팀의 줄기세포 연구의 복잡함과 더불어 황우석 사태의 급작스러운 발발과 전개와 연결되어 있다.

음모론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답을 찾는 지름길이다. 황우석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황빠들은 많은 정보를 획득하는데, 정보량이 늘어 갈수록 의문과 의심 또한 비례하여 늘어난다. 황빠들은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일반인들 중 누구보다도 박식하다. 하지만 황우석 사태를 이해함에 있어 과학기술적 요소들은 물론 전체적

인 맥락과 유연성을 황빠들은 고려치 않는다. 대신 이들은 황우석과 관계된 특정한 세력들간의 이해관계와 권력관계에 의해 황우석 사태를 해석한다. 황빠들의 통찰없는 박식함과 사회과학주의에 의해 음모론은 완성된다. 여기서 음모론은 다른 공동 연구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책임전가의 정치와 연결된다.

하지만 황빠 현상은 황우석 과학기술복합동맹의 주요 축인 언론의 담론 유포와 정부의 줄기세포 연구 거버넌스의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 언론은 무비판적인 애국주의, 경제주의, 미래주의 담론을 유포시키면서 황빠의 감성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대통령을 필두로 황우석 신화를 만드는데 앞장을 섰으며 합리적인 민주적인 틀 안에서 줄기세포 연구를 규제하지 못했다. 즉 황빠 현상은 황우석 과학기술복합동맹의 동맹효과와 그 여파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황빠 현상은 곧 한국민주주의의 질을 반영한다. 즉 질이 낮고 신뢰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문화적·제도적 여건이 줄기세포에 대한 민족주의적 열망과 미래주의적 비전과 지나치게 잘 호응하면서 음모론과 책임전가의 정치를 양산하여 민주적이고 논리적인 절차에 의한 책임을 묻는 방식을 대체하고 있다.

요약하면, 황빠 현상은 황우석 사태를 둘러싼 다양하고 모순된 사회기술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데 이것들은 다음과 같다: (1) 민족주의적 열망과 미래주의적 희망에 기반한 황빠들의 집단적 감성 (2) 한국 사회 체제에 대한 불신의 문화 (3) 황우석 사태의 복잡함과 이해하기 어려움 (4) 황빠들의 통찰 없는 박식함과 사회과학적 환원주의 (5) 언론의 애국주의, 경제주의, 미래주의 담론의 유포 (6) 정부의 줄기세포 연구 거버넌스의 실패. 이러한 복합적이고 상호 연관된 요소들과 구체적인 맥락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황빠를 단순한 심리적 정신 이상자로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체제가 만들어 낸 특이한 주체'로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황빠'라는 주체는 '너무나도 이상한 일'들을 만들어 내는 한국 사회 체제에서 언제든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비극적이면서도 희극적인 존재다. 한국 사회 체제의 모순과 혼란 속에서 태어난 황빠는 민족주의적 열망, 미래주의적 비전, 민주주의적 가치 사이에서 갈등하는 현대 한국인의 모순과 혼란을 대표하는 이 시대의 키워드일지도 모른다.

□ 참고문헌

- 강양구·김병수·한재각. 2006. 『침묵과 열광』. 후마니타스.
- 고준환. 2006. 『뒤통에 걸린 황우석』. 답게.
- 노광준. 2007. 『뉴스는 반만 믿어라: 황우석 죽이기 언론권력의 실체』. 진리탐구.
- 김근배. 2007. 『황우석 신화와 대한민국 과학』. 역사비평사.
- 김동광. 2002. “과학과 대중의 관계 변화: 대중에 대한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과학기술학연구』. 2(2): 1-24.
- 김병수. 2006. “황우석 사태로 본 우리나라 생명공학의 특징과 개선과제.” 『2006 녹색보고서』. 녹색사회연구소
- 김종영. 2006. “복합사회현상으로서의 과학과 과학기술복합동맹으로서의 황우석” 『역사비평』 74: 82-114.
- 김환석. 2006. “황우석 사태의 원인과 사회적 의미” 『경제와 사회』 71: 237-255.
- 김희원. 2006. “불확실성 사건에 대한 언론사의 보도 전략 : 황우석 사건 보도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과학커뮤니케이션 협동 과정 석사학위 논문.
- 라이히(W. Reich). 2006(1933). 『파시즘의 대중 심리』. 황선길 역. 그린비.
- 문형열·정민권·리처드 유. 2007. 『황우석 리포트』. 자연과 자유.
- 박희제. 2002. “공중의 과학 이해 연구의 두 흐름 : 조사 연구와 구성주의 PUS의 상보적 발전을 향하여” 『과학기술학연구』 2(2): 25-54.
- 반현. 2006. “황우석 사건과 텔레비전 뉴스: 시간에 따른 뉴스 프레임 변화” 원용진·전규찬 편, 『신화의 추락, 국익의 유령 : 황우석, <PD수첩>, 그리고 한국의 저널리즘』. 한나래. pp. 151-210.
- 서울대학교 연구처. 2006. “NT-1 세포의 발생기원: 황우석 전 교수 연구 의혹 관련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 결과 보고서 보충 자료” 5월 1일 발표.
-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 2006. “황우석 교수 연구의혹 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 1월 10일 발표.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 “즐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수사 결과” 5월 12일 발표.
- 서이중. 2006. “과학정치적 시각으로 본 황우석 사태” 2006년 한국과학기술학회 후기 학술대회 발표 논문. pp. 107-129.
- 이영희. 2006. “황우석 사태와 과학기술정책” 김세균·최갑수·홍성태 편. 『황우석 사태와 한국 사회』. 나남출판. pp. 91-105.
- 이형기. 2007. 『잊지 말자 황우석』. 청년의사.
- 전규찬. 2006. “공통이익 보호, 민주언론 책임의 실패 : 황우석 사태를 통해 본 한국 저널리즘의 한계” 김세균·최갑수·홍성태 편. 『황우석 사태와 한국 사회』. 나남출판.

판. pp. 151-180.

- 최영재. 2006. "사건 뉴스 프레임의 덩에 걸린 황우석 보도" 원용진·전규찬 편. 『신화의 추락, 국익의 유령: 황우석, <PD수첩>, 그리고 한국의 저널리즘』. 한나래. pp. 211-246.
- 최종덕. 2006. "계획적 속임과 자발적 속임의 진화발생학적 해부" <황우석 사태로 보는 한국의 과학과 민주주의>, 민주사회정책 연구원 주최 토론회.
- 한학수. 2006. 『여러분! 이 뉴스를 어떻게 전해 드려야 할까요?』. 사회평론.
- 홍성욱. 2006. "과학기술학은 황우석 사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역사비평』 74: 55-81.

Adorno, Theodor. 1994. *The Stars Down to Earth*. London: Routledge.

Best, Steven and Douglas Kellner. 2002. "Biotechnology, Ethics and the Politics of Cloning." *Democracy and Nature* 8(3): 439-465.

Bloor, David. 1991. *Knowledge and Social Image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Dierkes, Meinolf and Claudia von Grote. 2001. *Between Understanding and Trust: The Public, Science and Technology*. Amsterdam, Netherlands: Harwood Academic Publishers.

Felt, Ulrike. 1993. "Fabricating Scientific Success Stories."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2: 375-390

Fenster, Mark. 1999. *Conspiracy Theories: Secrecy and Power in American Culture*.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Festinger, Leon. 1957.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Evanston, IL: Row, Peterson.

Festinger, Leon, Henry Riecken and Stanley Schachter. 1956. *When Prophecy Fail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Franklin, Sarah. 1997. *Embodied Progress: A Cultural Account of Assisted Conception*. London: Routledge.

Fetterman, David. 1998. *Ethnography* (2nd ed.). London: Sage Publications.

Fox, Cynthia. 2007. *Cell of Cells: The Global Race to Capture and Control the Stem Cell*. New York: W.W. Norton & Company.

Goldstein, Arnold. 2002. *The Psychology of Group Aggression*. West Sussex, England: John Wiley & Sons Ltd.

Gottweis, Herbert. 2002. "Stem Cell Politics in the United States and in Germany: Between Bioethics and Regulations." *Policy Studies Journal* 30(4): 444-469.

Gregory, Jane and Steve Miller. 1998. *Science in Public: Communication, Culture, and*

- Between Bioethics and Regulations." *Policy Studies Journal* 30(4): 444-469.
- Gregory, Jane and Steve Miller. 1998. *Science in Public: Communication, Culture, and Credibility*. Cambridge, MA: Basic Books.
- Grossberg, Lawrence. 1992. *We Gotta Get Out of This Place: Popular Conservatism and Postmodern Culture*. London: Routledge.
- Harmon-Jones, Eddie and Judson Mills. 1999. *Cognitive Dissonance: Progress on a Pivotal Theory in Social Psycholog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ammersley, Martyn and Paul Atkinson. 1995. *Ethnography: Principles in Practice* (2nd ed.). London: Routledge.
- Herold, Eve. 2006. *Stem Cell War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Hwang, Woo Suk et al. 2004. "Evidence of a Pluripotent Human Embryonic Stem Cell Line Derived from a Cloned Blastocyst." *Science* 303: 1669-1674. Withdrawn.
- Hwang, Woo Suk et al. 2005. "Patient-Specific Embryonic Stem Cells Derived from Human SCNT Blastocysts." *Science* 308: 1777-1783. Withdrawn.
- Irwin, Alan. 1995. *Citizen Science: A Study of People, Expertis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New York: Routledge.
- Knight, Peter. 2000. *Conspiracy Culture*. London: Routledge.
- Latour, Bruno. 2005. *Reassembling the Social: An Introduction to Actor-Network The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ichael, Mike. 1992. "Lay Discourses of Science: Science-in-General, Science-in-Particular, and Self." *Science, Technology, & Human Values* 17(3): 313-333.
- _____. 2002. "Comprehension, Apprehension, Prehension: Heterogeneity and the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Science, Technology, & Human Values* 27(3): 357-378.
- Neidhardt, Friedhelm. 1993. "The Public as a Communication System."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2: 339-350.
- Nelkin, Dorothy. 1995. *Selling Science: How the Press Covers Science and Technology* (revised ed.). New York: W.H. Freeman and Company.
- Offe, Claus. 1999. "How can We Trust our Fellow Citizens?" pp. 42-87 in Mark Warren (ed.). *Democracy and Tru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ker, Martin. 2001. "Human Science as Conspiracy Theory." pp.191-207 in Jane Parish and Martin Parker (eds.). *The Age of Anxiety: Conspiracy Theory and the Human*

- Sciences*.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Paxton, Robert. 2004. *The Anatomy of Fascism*. New York: Vintage Books.
- Prainsack, Barbara. 2006. "Negotiating Life': The Regulation of Human Cloning and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in Israel." *Social Studies of Science* 36(2): 173-205.
- Rajan, Kaushik. 2006. *Biocapital: The Constitution of Postgenomic Life*.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Rose, Nikolas. 2007. *The Politics of Life Itself: Biomedicine, Power, and Subjectiv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bin, Herbert and Irene Rubin. 2005. *Qualitative Interviewing: The Art of Hearing Data*. (2nd ed.). London: Sage Publications.
- Stocking, Holly. 1999. "How Journalists Deal With Scientific Uncertainty." pp. 23-41. in Sharon Friedman, Sharon Dunwoody, and Carol Rogers (eds.). *Communicating Uncertainty: Media Coverage of New and Controversial Science*. Mahwah, NJ: LEA Publishers.
- Wolcott, Harry. 1999. *Ethnography: A Way of Seeing*. New York: Altamira Press.
- Wynne, Brian. 1995.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pp. 366-388 in Shelia Jasanoff et al. (eds.). *Handbook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London: Sage Publications.
- _____. 1996. "Misunderstood Misunderstandings: Social Identities and Public Uptake of Science." pp. 19-46 in Alan Irwin and Brian Wynne (eds.). *Misunderstanding Science?: The Public Reconstruc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earley, Steven. 2000. "Making Systematic Sense of Public Discontents with Expert Knowledge: Two Analytical Approaches and a Case Study."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9(1): 105-122.
- Zehr, Stephen. 1999. "Scientists' Representation of Uncertainty." pp. 3-21. in Sharon Friedman, Sharon Dunwoody, and Carol Rogers (eds.). *Communicating Uncertainty: Media Coverage of New and Controversial Science*. Mahwah, NJ: LEA Publishers.